



보도	2023.9.20.(수) 조간	배포	2023.9.19.(화)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팀 장	김재갑	(02-3145-8050)
		담당자	선 임	김민호	(02-3145-8052)

'23.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 개 요

□ '23.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9%로 전월말(0.35%)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2%) 대비 0.17%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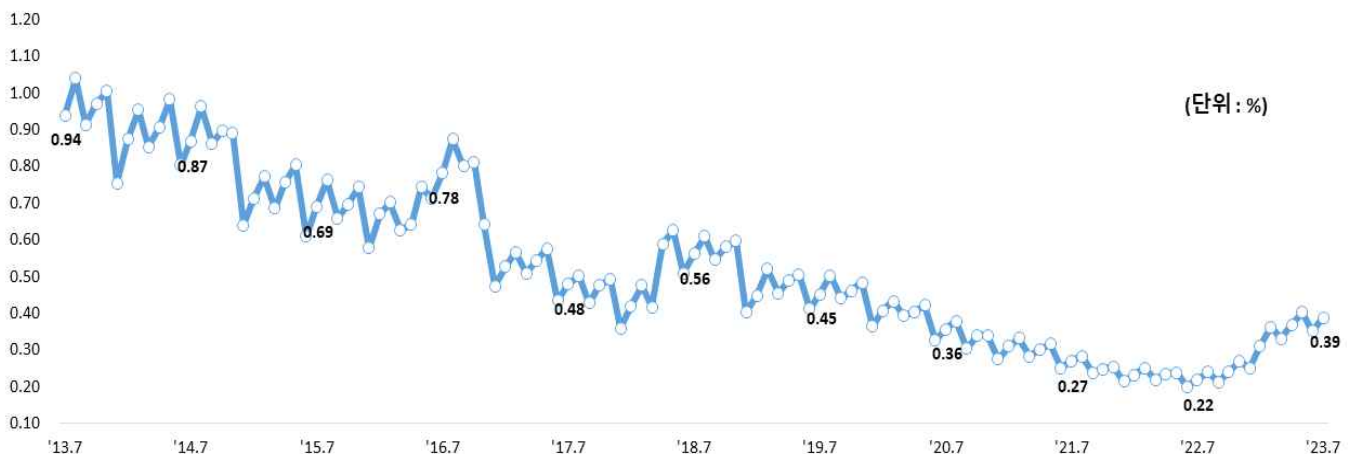
- '23.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0조원)은 전월(2.0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1조원)는 분기중 상·매각 미 실시 등으로 전월(3.1조원) 대비 감소(△2.0조원)

	('21.7월)	('22.7월)	('23.2월)	('23.3월)	('23.4월)	('23.5월)	('23.6월)	('23.7월)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0.9	0.9	1.9	1.7	1.8	2.1	2.0	2.0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0.5	0.5	0.8	2.4	0.9	1.3	3.1	1.1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0.4	0.4	1.1	△0.7	0.9	0.8	△1.1	0.9

- '23.7월중 신규연체율('23.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6월말 대출잔액)은 0.09%로 전월(0.09%)과 유사한 수준* [전년 동월(0.04%) 대비 0.05%p 상승]

* 신규연체율(%): ('22.7) 0.04 → ('23.3) 0.08 → ('23.4) 0.08 → ('23.5) 0.10 → ('23.6) 0.09 → ('23.7) 0.09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 부문별 현황

- (기업대출) '23.7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41%)은 전월말(0.37%)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7%p 상승]
- 대기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말(0.11%)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말(0.14%) 대비 0.02%p 하락]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49%)은 전월말(0.43%)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27%) 대비 0.22%p 상승]
 - 중소기업인 연체율(0.51%)은 전월말(0.45%)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34%) 대비 0.17%p 상승]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45%)은 전월말(0.41%)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17%) 대비 0.28%p 상승]
-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36%)은 전월말(0.33%)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19%) 대비 0.17%p 상승]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3%)은 전월말(0.22%)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말(0.11%) 대비 0.12%p 상승]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1%)은 전월말(0.62%) 대비 0.09%p 상승 [전년 동월말(0.37%) 대비 0.34%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연체율 시계열 ('13.7월~'23.7월)	'20.7월	'21.7월	'22.7월 (A)	'23.6월 (B)	'23.7월 (C)	증감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44	0.35	0.24	0.37	0.41	0.17	0.04
대기업		0.29	0.37	0.14	0.11	0.12	△0.02	0.01
중소기업		0.47	0.34	0.27	0.43	0.49	0.22	0.06
중소법인		0.62	0.46	0.34	0.45	0.51	0.17	0.06
개인사업자		0.30	0.21	0.17	0.41	0.45	0.28	0.04
가계대출		0.26	0.18	0.19	0.33	0.36	0.17	0.03
주택담보대출		0.17	0.11	0.11	0.22	0.23	0.12	0.01
가계신용대출등		0.45	0.33	0.37	0.62	0.71	0.34	0.09
원화대출계		0.36	0.27	0.22	0.35	0.39	0.17	0.04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국내은행의 7월말 연체율은 6월말 하락 이후 상승하였으나,
 - 이는 7월중 은행 신규연체율이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분기말에 은행의 연체·부실채권 상·매각이 집중되는데 주로 기인
 - 또한, 현재 은행권 연체율은 과거 장기추세*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 유지
- * 코로나19 팬데믹 전 과거 10년('10년~'19년)간 월평균 연체율 0.78%
- 다만, 최근 글로벌 경제여건 등 고려시 연체율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 하반기에도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취약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